

東武公의 學問과 哲學思想
- 儒學的 背景에서 한 평생 노력을 통해서 完成한 四象의 人間學 -

송 일 병*

Abstract

The Thought of Master Dong-mu on Scholarship
and Philosophy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Greeting the 100 year celebration of the death of Master Dong-mu, through investigating his thought on Scholarship and Philosophy, and his new view of human being based on Sasang, I tried to reevaluate him as a Confucianist of practical mind.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ings ;

1. Dong-mu's recognition system of things is that based on the mind of summarizing things in view of Affair-Mind-Body-Object originated from Confucianism, and it developed "the Marvel of Easiness & simpleness based on Yin-yang" into "the Marvel of Easiness & simpleness based on Sasang"

2. Through understanding old Confucianism newly, Dong-mu summarized human being as having a natural character in view of Nature and Order and an autononical character in view of Knowledge and Deed, and emphasized an autononical character in view of Knowledge and Deed.

3. In view of Knowledge and Deed, Dong-mu presented How to Say and Behave, and took it as a model of behavior in the new Confucianism. Also he presented the view of Knowledge and Deed based on Constitutions, and took it as a new mind of treatment.

4. Dong-mu can be estimated highly, in that he completed a new confucian view-point of Human being in the period of philosophic chaos, and executed the mind of General health maintenance and the mind of control others through a confucian self-control.

1. 緒論

東武 李濟馬는 혼란스럽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먼저 『格致藁』를 지어 그의 儒學哲學을 四象類型的

입장에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東醫壽世保元』을 지어 그의 새로운 治療醫學精神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末年에는 『濟衆新編』이나 「廣濟說」 등을 저술하여 그의 廣濟精神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송일병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 958-9232 E-mail) ibsong@nms.kyunghee.ac.kr

그는 일찍이 『周易』의 ‘陰陽의 易簡之妙’를 발전시킨 ‘四象의 易簡之妙’로 새로운 四象의 認識體系를 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儒學을 재해석하려 하였고, 이러한 노고는 그의 초기 著述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四象의 認識體系를 바탕으로 그는 일생의 노력을 통해서 기존 儒學의 主氣論的, 主理論的 解釋과는 다른 새로운 四象의 人間學을 확립하였다.

이제 東武公 逝去 100週期를 맞이하여 그의 學問觀과 哲學思想을 살펴보고 儒學哲學의 背景 속에서의 새로운 四象의 人間學을 고찰하여, 實踐的 儒學者 또는 儒學哲學者로서의 그를 再照明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東武公의 學問觀과 哲學思想

1) 四象의 易簡之妙 - 東武公의 哲學思想

『周易·說卦傳』에서는 聖人이 易을 지은은 장차 ‘性命之理’를 順하기 위함이며, 이 때문에 하늘에서는 陰陽·땅에서는 剛柔·사람에서는 仁義를 중시한다고 하였고¹⁾, 또한 『周易·繫辭傳』에서는 陰陽의 二分法의인 모습으로 變化之道를 설명하려 했다.²⁾ 이는 인간 및 우주를 陰陽論的 要約精神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한편, 東武公은 기존의 陰陽論的 認識體系와는 달리 天人性命·上下左右의 四元構造的 認識體系에 기반을 둔 四象의 要約精神으로 인간 및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東武遺稿·時色耳目』에서는 “膀胱物也, 腰膂身也, 胸膈心也, 面目事也. 事即天也, 物即人也, 身即命也, 心即性也. 天在上也, 人在下也, 身向左也, 心向右也.”라 하여 天人과 性命·心身の 관계를 모두 四象의 體系로 要約하여 설명하려고 하였고, 『格致藁·反誠箴 太極』에서는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之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라 하여

四象의 認識體系로 變化之道를 설명하려 하였다.

『周易』은 陰陽의 認識體系로 ‘易簡之妙’³⁾를 구현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東武公은 이를 발전시켜 事心身物의 四象의 要約精神을 통해 ‘易簡之妙’를 구현하려 한 것으로, 이는 그의 四象의 哲學觀이라 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에서 그가 “... 潛心之下真有易道存焉.”이라 한 것은 變化에 대한 새로운 認識 方法으로서의 ‘四象의 易簡之妙’를 의미한다 하겠다.<표1>

표 1. 陰陽의 易簡之妙와 四象의 易簡之妙의 비교

	陰陽의 易簡之妙	四象의 易簡之妙
性命之理	天 - 陰 地 - 剛 人 - 仁	天 機: 耳目鼻口 - 天時 世會 人倫 地方 人 事: 肺脾肝腎 - 事務 交遇 黨與 居處 知(性): 頤臆臍腹 - 籌策 經綸 行檢 度量 行(命): 頭肩腰腎 - 識見 威儀 材幹 方略
變化之道	太極 生↓ 兩儀 生↓ 四象 生↓ 八卦	太極 = 心 兩儀 = 心身 四象 = 事心身物 事之終始 / 物之本末 / 心之緩急 / 身之先後

2) 기존 儒學에 대한 四象類型的 再解釋(四象의 易簡之妙)-東武公의 學問思想

기존과 다른 事心身物의 四象의 要約精神을 바탕으로 東武公은 기존 儒學을 四象類型的으로 再解釋하려고 하는 認識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그는 초기 저술인 『格致藁·儒略 事物篇』에서 事心身物의 四象의 認識方法論을 제시하고, 이를 기본으로 기존 儒學을 재해석하려고 하였다.<표2>

『格致藁·反誠箴 太極』에서는 宇宙와 人間을 설명하는데 있어 ‘一身立誠’, ‘萬物同胞’, ‘整齊知行之術’, ‘平均財祿之權’으로 나누어 ‘中庸之道’, ‘大學之德’, ‘知行’, ‘財祿’의 理가 天下, 地上, 我, 他에서 이루어지니 乾兌, 坤艮, 離震, 坎巽의 方位가 上下左右에서 形으로 나타내게 됨을 설명하며, 上下를 未來와 過去로 左右를 知行과 財祿으로 배속하여 설명하였고⁴⁾, 『東武遺稿·八卦箴總論』에서는 八卦箴을

1) 『周易·說卦傳』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2) 『周易·繫辭傳』
“是故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3) 『周易·繫辭傳』
“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簡而天下之理得矣.”

요약하면서 仁義禮智의 理가 過去, 知行, 財祿, 未來에서 行해지고, 그 像이 善惡, 賢不肖, 富貴貧賤, 誠僞로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⁵⁾. 이는 上下左右의 時空概念 속에서 天人(道德)·性命(知行, 財祿)을 四元構造的으로 요약설명하려는 것이다.

표 2. 『格致藁·儒略事物篇』의 事心身物的 要約精神

	事	心	身	物
	決	覺	行	止
	誠	慧	能	勤
萬	散	聚	群	居
	智	禮	義	仁
	萬	一	一	萬
	大	小	近	遠
	治平	格致	誠正	修齊
	貌言視聽	辨思問學	屈放收伸	志膽慮意

『格致藁·反誠箴』序頭에서는 箴의 名義를 설명하면서 乾兌箴·坤艮箴은 각각 中庸·大學을 좇았다고 하고 離震箴·坎巽箴은 각각 柳下惠·伯夷로부터 法을 취하였다고 하여 八卦箴의 名義를 上下左右의 四元構造的 개념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⁶⁾.

4) 『格致藁·反誠箴 太極』

“一身立誠於昊天之下 而中庸之道 行於昊天之下
 乾兌部位 所以形於上也.
 萬物同胞於大地之上 而大學之德 行於大地之上
 坤艮部位 所以形於下也.
 整齊知行之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震部位 所以形於左也.
 平均財祿之權 其理在右 而可得之權 必在於他
 坎巽部位 所以形於右也.”

未來在天
 天在上也

兌
 乾

知行在我
 我在左也

震離

太極

坎選

財祿在他
 他在右也

坤
 艮

過去在地
 地在下也

5) 『東武遺稿·八卦箴總論』

“乾兌智也, 其理行乎未來, 而誠僞之辨, 蓋取諸象也.
 坤艮仁也, 其理行乎過去, 而善惡之辨, 蓋取諸象也.
 離震義也, 其理行乎知行, 而賢不肖之辨, 蓋取諸象也.
 坎巽禮也, 其理行乎祿財, 而富貴貧賤之辨, 蓋取諸象也.”

『東武遺稿·時色耳目』에서는 功業, 賢能, 言行, 財食을 각각 天地左右에 있다고 하며, 時(中)의 聖人 孔子·(自)任의 聖人 伊尹·和의 聖人 柳下惠·清(廉)의 聖人 伯夷를 배속하였고, 또한 天地之道로 質·約·謙·廉를 말하며, 通天·保民·立人·濟衆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⁷⁾. 『東武遺稿·膀胱物也』에서는 事物心身, 天人性命을 上下左右로 배속하여 설명하며, 天心の 惡私, 人心의 惡慾, 命理의 戒逸, 性理의 戒放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⁸⁾.

이상과 같이 東武公은 上下左右, 天人性命 내지는 事心身物의 체계로 儒學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 덕목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기존 儒學의 太極의 설명방법인 主理論이나 兩儀的 설명방법인 主氣論과는 차이가 있는 ‘四象的 易簡之妙’에 의한 새로운 해석방법의 제시라 할 수 있다. 그는 上下左右의 時空間의인 구도 속에서 上下의 先天的·構成的인 요소(道德)와 左右의 後天的·機能的인 요소(性命 / 言行, 財祿)로 요약하였고, 上下의 先天的이고 天賦的인 입장에서의 道德論的·性命論的인 人間觀과 左右의 後天的인 입장에서의 知行論으로 人間哲學을 추구하고자 하였다.<표3>

2. 東武公의 知行論의 人間學

東武公은 實踐的인 儒學哲學者로서 그의 哲學思想은 性命·道德을 知行論的인 人間學으로 요약하여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그의 人性論의 핵심은 責心을 통한 存心養性의 知와 責氣를 통한 修身立命의 行을 닦아 道德의 경지와 仁聖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自律的인 知行을 통한 性命의 완성이 그 목표인 새로운 人間型의 제시라 할 수 있다. 이런 그의 人間學은 초기 著述에서부터

6) 『格致藁·反誠箴』

“此箴名義 依倣易象而 乾兌箴 尊道中庸 坤艮箴 欽德大學 離震箴 取則柳下惠 坎巽箴 取則伯夷.”

7) 『東武遺稿·時色耳目』

“功業在天, 賢能在地, 言行在左, 財食在右.
 在天得時, 在地得任, 左邊得和, 右邊得清.
 在天琢磨, 在地切磋, 左邊恂慄, 右邊赫喧.
 天地之道, 一曰質, 二曰約, 三曰謙, 四曰廉.
 質可以通天, 約可以保民, 謙可以立人, 廉可以濟衆.”

8) 『東武遺稿·膀胱物也...』

“膀胱物也. 腰膈身也. 胸膈心也. 面目事也.
 事即天也. 物即人也. 身即命也. 心即性也.
 天在上也. 人在下也. 身向左也. 心向右也.
 天心惡私也, 人心惡慾也, 命理戒逸也, 性理戒放也.”

표 3. 既存 儒學의 四象類型的 再解釋

	上	下	左	右
格致彙 · 太極	乾兌 未來 在天在上也 一身立誠於昊天之下 而中庸之道 行於昊天之下	坤艮 過去 在地在下也 萬物同胞於大地之上 而大學之德 行於大地之上	離震 知行 在我我在左也 整齊知之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坎巽 祿財 在他他在右也 平均財祿之權 其理在右 而可得之權 必在於他
格致彙 · 反誠箴	尊道中庸	欽德大學	取則柳下惠	取則伯夷
東武 遺稿 · 八卦箴 總論	乾兌 智也, 其理行乎未來而, 誠偽之辨	坤艮 仁也, 其理行乎過去而, 善惡之辨	離震 義也, 其理行乎知行而, 賢不肖之辨	坎選 禮也, 其理行乎祿財而, 貧富貴賤辨,
東武 遺稿 · 時色 耳目	功業在天 在天得時 在天琢磨 秉質而通天, 則功業成也. 在天秉質	賢能在地 在地得任 在地切磋 守約而保民, 則賢能共也. 在地守約,	言行在左 左邊得和 左邊恂慄 存心養性而謙以立人, 則言行美也. 左邊執謙,	財食在右 右邊得清 右邊赫喧 修身立命而廉以濟衆, 則財食吉也. 右邊持廉.
東武 遺稿 · “膀胱 物也. ...”	事即天也. 天在上也. 天心惡私也, ...故我身忘於天, 而漸向左也 ...不以私要天也. ...則身益正大而天必應也. 天心不可以私得, 而可以無逸得也.	物即人也. 人在下也. 人心惡慾也, ...故我心忘於人, 而漸向右也. ...不以慾要人也. ...則心益光明而人必與也. 人心不可以慾得, 而可以無放得也.	心即性也. 心向右也. 性理戒放也. 柳下惠以衆惡而制惡於地上 故不厭時俗之賢.	身即命也. 身向左也. 命理戒逸也. 伯夷以一善而興善於天下 故必求越等之賢.
	事	物	心	身
	天	人	性 / 知	命 / 行
	時間的 / 構成的		空間的 / 機能的	
	人間 外在的 要素		人間 內在的 要素	
	天(物)		人(己)	
	先天的(天賦的)		後天的(自律的)	

시작하여 그의 全. 著述에 제시되고 있다.

1) 『東武遺稿·教子平生箴』

우선, 東武公은 그가 46세가 되던 壬午年에 자제들에게 평생을 두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글인 『東武遺稿·教子平生箴』에서 “... 寡慾力行, 遇事求知, 知多心活, 慾多心傷.”이라 하여 그의 초기 저술부터知行을 강조하고 있으며 “...修之者吉, 不修者凶.”라 하여 個人의 修不修에 따라서 吉凶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이러한 知行論의 人間學은 그의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사이의 저술로 추정되는 『東醫壽世保元四

象草本卷』에도 잘 나타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一統』에서는 性은 ‘知行’으로써 하고, 命은 ‘衣食’으로써 한다고 하였는데, 知行이 積小한 것을 ‘薄德’, 衣食이 貪濫한 것을 ‘悖道’라 하였고, 知行과 衣食을 잘 수행하면 道德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薄德’·‘悖道’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다.⁹⁾ 또한 “天下所成者, 其俗擴而難周, 明知其理之善者德也, 性也. 一人所作者, 其

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一統』

“天生萬民, 性以知行, 萬民之生也, 有知行則生, 無知行則死. 知行者 德之所由生也. 註: 仁義禮智, 忠孝友悌, 諸般百善皆出於知行. 天生萬民, 命以衣食, 萬民之生也, 有衣食則生, 無衣食則死. 衣食者 道之所由生也. 註: 士農工商, 田宅邦國, 諸般百用皆出於衣食. 知行 欲其衆人, 衣食 欲其潔己. 知行積小者 薄德之謂也. 衣食貪濫者 悖道之謂也.”

欲膠着而易惑, 誠行其欲之正者道也, 命也.”라 하여 明知·誠行을 道德·性命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三統』에서는 ‘事事盡善, 節節必中’하고, ‘明知誠行, 善思敬行’을 통해 ‘自然避凶, 趨吉免危, 而祇安五臟完而福壽至矣’라 하여 후천적인 知行을 통해 凶을 피하고 吉함을 지향하며, 福壽에 이름을 말하고 있다¹⁰⁾. 한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一統』에서 “貪儒鄙薄之人, 四隅漏缺, 卽私慾之桎梏, 其人暴棄者也, 聖人與衆人萬殊也.”이라 하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五統』에서 “...孟子曰: 自棄者 不可與有爲也, 此之謂也.... 孟子曰: 自暴者 不可與有言也, 此之謂也...”라 하여 타고난 自律의인 知行的 노력을 ‘自暴自棄’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遺稿抄』에서 知行論을 言行論의으로 설명하는 부분과 연결된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二統』에서는 知行論의인 측면에서 心身關係를 四象人의 安身과 欲心, 接人과 放心으로 정리하고, ‘知命者’와 ‘盡性者’를 강조하였으며¹¹⁾,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 第四統』에서는 知行之像을 말하며 孔子, 曾子, 孟子, 子思의 知와 行을 통해 四象人의 像을 구분하여 心身論의 體質辨證의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¹²⁾. 이는 知行論을 가지고 生理論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라고 할 수 있다.

3) 『格致藁』

東武公이 44세에 시작해서 57세까지 13년만에 완성한 그의 哲學思想의 集大成인 『格致藁』에서는 ‘知人正己論’을 설명하며 그의 知行論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東武公은 그의 나이 46세에 완성한 『格致藁·獨行篇』에서 “篇名獨行, 何義耶? 曰: 好而知其惡, 則中立而不倚; 惡而知其美, 則和而不流. 如此者自然獨行, 獨行者不動心. 知人誠僞則不惑, 不惑則正心, 正心則不動心, 不動心則遜世中庸而無悶.”이라 하여 獨行篇의 篇名을 설명하며, 不動心과 中庸에 이르게 되는 출발점이 知人임을 말하고 있고, 또한 孟子의 “頑夫之心 懦夫之心 鄙夫之心 薄夫之心”¹³⁾을 끌어다 心慾으로 규정하고 설명하여 心慾論의 知人을 성립시켰다. 이는 『東醫壽世保元』의 體質的 心慾論으로 발전하게 되어 體質的 知人論이 성립되게 된다. 한편 그가 57세 되던 해에 완성한 『格致藁·反誠箴』에서는 “篇名反誠 何謂也..., 反於誠 而自警也. 自警者 反身之誠 而未免有詐 屢復屢失 而至於自警也.”라 하였고, “詐心而行詐則詐也. 詐心便發 未及行詐 而反誠則 學問也.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라 하여 學問하는 精神과 正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 『東醫壽世保元』

『東醫壽世保元』에 와서 東武公은 實踐의 儒教精神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知行論의 人間學을 제시하며, 心身論의 醫學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 耳目鼻口의 好善之心과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은 衆人이나 堯舜이 한가지지만 ‘存其心 養其性’하여야 堯舜의 知가 될 수 있고, ‘修其身 立其命’하여야 堯舜의 行이 된다고 설명하며¹⁴⁾ 驕矜伐夸의 邪心과 奪侈儒竊의

1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三統』
“人非堯舜, 何能仁義禮智事事盡善, 人非孔孟, 何能喜怒哀樂節節必中. 雖不善也, 不太不善則, 己近於善矣. 雖不節也, 不太不節則, 己近於節矣. 如此做去則, 自然避凶, 趨吉免危, 而祇安五臟完而福壽至矣.”

1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二統』
“太陽之安身, 點於居處而不點於事務; 少陰之安身, 點於事務而不點於居處; 少陽之安身, 點於黨與而不點於交遇; 太陰之安身, 點於交遇而不點於黨與. 是故, 太陽之欲心, 詐於居處而不奮於事務; 少陰之欲心, 奮於事務而不詐於居處; 少陽之欲心, 懶於黨與而不侈 於交遇; 太陰之欲心, 侈於交遇而不懶於黨與. 註: 有是點而有是惡, 衆人皆然, 惟知命者不然.”

“太陽之接人 能於交遇, 而不能於黨與. 少陰之接人 能於黨與, 而不能於交遇. 少陽之接人 能於事務, 而不能於居處. 太陰之接人 能於居處, 而不能於事務. 是故, 太陽之放心, 驕於交遇而不諱於黨與. 少陰之放心, 諱於黨與而不驕於交遇. 少陽之放心, 傲於事務而不侮於居處. 太陰之放心, 侮於居處而不傲於事務. 註: 有是能而有是惑 衆人皆然 有盡性者不然.”

1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 第四統』
“夫子之周遍 立於道也, 立於道者 立於身也, 太陽之象也. 曾子之治平 明於德也, 明於德者 明於心也, 少陰之象也. 孟子之雄辯 言於善也, 善也者 善於事也, 太陰之象也. 子思之中庸 行而誠也, 誠也者 誠於物也, 少陽之象也.”

13) 『孟子·伯夷章』
“故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 故聞柳下惠之風者 鄙夫寬 薄夫敦”

14) 『東醫壽世保元·性命論』
“人之耳目鼻口 好善之心 以衆人耳目鼻口論之則 堯舜 未爲加一鞭. 人之肺脾肝腎 惡惡之心 以堯舜肺脾肝腎論之則 衆人 未爲少一鞭. 人皆可以爲堯舜者 以此. 人之頤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 養其性 然後 人皆可以爲堯舜

怠心을 知行을 통해 극복하여야 한다는 知行論의 人間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知行積則 道德也. 道德成則 仁聖也. 道德非他 知行也. 性命非他 知行也.”라 하여 知行을 통해 누구나 道德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仁聖에 도달할 수 있다는 人間의 自律的 知行을 통한 性命의 完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心體之清濁 氣字之強弱”이라 하여 心身論의 知行論으로 확대하여 ‘責心’, ‘責氣’를 강조하고 있으며, 의학적인 차원에서의 心身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는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人不明也.”라 하여 喜怒哀樂의 偏急이 知行의 不備에서 온다고 보고 四象人의 體質的 知行을 통하여 暴動浪動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之已定之外 又有短長而 不全其天稟者則 人事之修不修而 命之傾也 不可不慎也.”라 하여 知行의 후천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知行의 實踐에 있어 東武公은 四象人別로 서로 다른 體質論的 知行論을 제시하고 있는데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서 頤臆臍腹과 頭肩腰腎에 담겨 있는 四象人의 邪心과 怠行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太陰人에게는 驕心(知)과 侈心(行)을, 少陰人에게는 矜心(知)과 奪心(行)을, 少陽人에게는 奪心(知)과 懶心(行)을, 太陽人에게는 伐心(知)과 竊心(行)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다¹⁵⁾.

더 나아가 『東醫壽世保元·廣濟說』에서는 이와 같은 四象人의 知行의 調節이 生理的인 健康의 유지 방법임은 물론이고 道德的인 好善惡惡의 倫理精神에까지 관여된다고 보았다.

之知也. 人之頭肩腰腎之中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 立其命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

15)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太陰之頤 宜戒驕心 太陰之臆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臍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戒奪心 少陽之腹 若無奪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幹 必在此也. 太陽之腎 宜戒竊心 太陽之腎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5) 『遺稿抄』

東武公은 59세(乙未年)에 저술한 『遺稿抄』에서 그의 知行論의 人間學을 더욱 구체화시켜 서술하고 있다. 우선, 言行과 人己의 先後의 순서를 제시하여 그의 哲學的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存心養性而謙以立人, 則言行美也. 修身立命而廉以濟衆, 則財食吉也.”라 하고, “存心養性, 行必正大. 修身立命, 人必廣濟.”라 하여 ‘存心養性’을 통하면言보다 行實이 먼저 正大하게 되고, ‘修身立命’을 통하면, 利益이 고르게 되어 己보다 人을 앞세우게 되니 남을 반드시 널리 구제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精於利理, 道平天下. 一於欲義, 德修一身. 道平天下, 是謂知命, 德修一身, 是謂樂天.”라 하여 ‘言行’과 ‘人己’의 실천을 통해 ‘知命樂天’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의 철학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東武公은 앞에서의 知行論의 人間觀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言行論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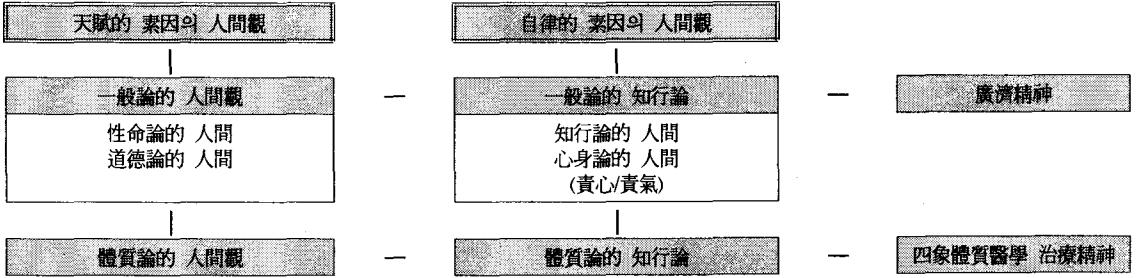
6) 『濟衆新編·知行論』

東武公은 61세(丁酉年)에 『濟衆新編』을 저술하였는데 그 중 ‘知行論’에서 ‘知行의 中道精神’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何以知之, 心以知之也. 何以行之, 身以行之. 心不可以放蕩, 放蕩則損知. 身不可以偷逸, 偷逸則損行.”이라 하여 知行을 心身과 연결하여 ‘損知’, ‘損行’의 경우를 말하였고, 知行을 기준으로 ‘愚人, 知人, 不肖人, 賢人’을 나누고 있다. 또한 “知有大小, ..., 行有大小, ... 知兼大小, 行兼大小然後, 可以隨所遇而安也.”라 하고 “得中道則大行小行, 皆爲善行也. 不得中道則大行小行, 俱爲惡行也.”라 하여 知行의 大小를 말하였고, 知行이 大小를 겸하고 中道를 얻을 것을 강조하여 知行論을 中庸의 精神으로 정리·요약하였다.

以上에서 東武公의 역대 著作에 나타난 그의 知行論의 人間學을 고찰하여 보았다.

東武公은 人間을 天賦的인 性命論的·體質論的인 人間과 自律的인 知行論的·心身論的인 人間으로 요약하여 파악하였으며, 특히 自律的인 노력을 중시하는 知行論의 人間學을 강조하여 이를 평생을 통하여 완성하였다.

표 4. 東武公의 人間學



이는 實踐的 儒學精神을 확대·발전시킨 心身中心의 人間哲學이라 할 수 있는데, 東武公은 이를 『格致藁』에서의 ‘知人正己論’, 『遺稿抄』에서의 ‘言行論’ 등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의학적인 차원에서는 體質論的 人間觀에 대한 體質論的 知行論을 제시하여 새로운 治療醫學精神으로 확대하였다. 더 나아가 이런 知行論的 人間學을 넓은 의미의 廣濟精神과 구체적인 治療醫學精神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3. 東武公은 知行論的 人間觀에 言行論的 方法을 제시하여 새로운 儒學哲學의 行動規範으로 삼았고, 醫學的 차원에서 體質論的 人間觀에 대한 體質論的 知行論을 제시하여 새로운 治療醫學精神으로 삼았다.
4. 東武公은 당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儒學的 人間觀을 完成하고,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통해 넓은 의미의 廣濟精神과 治療醫學精神의 儒學的 修己治人의 精神을 한평생 실천하신 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III. 結 論

1. 東武公의 事物에 대한 認識體系는 儒學的 배경에서 나온 事心身物的 要約精神의 認識體系로, 『周易』의 ‘陰陽的 易簡之妙’를 發展시켜 ‘四象的 易簡之妙’로 完成시킨 그의 四象的 哲學觀이라 할 수 있다.
2. 東武公은 기존 儒學의 再解釋을 통해, 先天的이고 天賦的인 立場에서의 性命論的 人間觀과 自律的인 立場에서의 知行論的 人間觀으로 要約하였고, 그 중에서도 自律的 知行論을 강조하였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신일문화사, 서울, 1972.
2. 李濟馬, 格致藁, 덕흥인쇄소, 함흥, 1940.
3. 原人手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연변민족의학연구회, 1984.
4. 李濟馬 著·이창일 譯註, 東武遺稿-東武 李濟馬가 남긴 글-, 청계출판사, 성남, 1999.
5.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周易傳義,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1998.